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이란 핵시설 폭격과 북·중·러의 동향

실히 느꼈다. 그때부터 이란은 은밀히 핵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노출되어 “이란은 악의 축이다”라며 유엔을 통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2015년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체결할 때 소규모의 산업을 핵농축만을 가능하게 했다. 그 후 IAEA는 지난 달(5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60% 농축우라늄과 핵탄두 제조 능력을 우려하면서, 핵시설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핵 협상했지만, 합의 실패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6월 13일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핵 과학자 일부 요원도 희생이 되었다.

이란 주변 아랍국가들은 이란 내에 핵 시설이 구축을 반대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무력에 휩쓸려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랍국가들이 동조에서 멀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켰고, 최근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완전히 숙대발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자신들의 보급로

를 쥐고 있던 후티 반군까지 미국을 통해 무력화했으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이란과 전면전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이란의 핵 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했고,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습이 미국과 “완전한 공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결국 이란은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며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란이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번 핵시설에 대한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전격 밝혔다. 양국의 최종 작전 수행을 마친 후 두 국가의 12시간 휴전과 이어지는 ‘3단계 종전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중동 이란의 핵시설 파괴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반응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방공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지원 협약이 있지만, 자기 코가 석 자라 지원할 수 없고, 중국은 군수 물자 지원실이 있지만, 근거 없고, 무기를 제공하면서까

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북한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어느 국가보다 관심 있게 보고 추가 보안 책을 수립할 것이다. 북한은 원자로가 있는 영변, 그리고 평양 강선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과 마찬가지로 산악 지대 지하 깊이 구축되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사실상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핵 개발시설이 있을 수 있다.

금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치를 약 50기, 한국 국방연구원은 약 80~90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핵전문가는 “미국이 이른바 북한 핵시설에 선제공격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폭격을 지켜본 북한이 ‘당분간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지난 정부에서 풀린 남북, 북미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휴전상태에서 국가 이익이 될 정책적 대책을 만들어 협상하거나

상대국에 은밀히 보복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 자고로 지구촌에 핵무기는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괴멸의 무기이다.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해 더 큰 힘의 필요를 부르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느껴본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음력 6월 8일)



48년생 근사한 솜씨로 작품을 남겨보자.60년생 의외의 적성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72년생 소리 없는 성장 강이 바다로 간다.84년생 착한 거짓으로 손님을 넓혀서자.96년생 하늘만큼 명만큼 기쁨이 커져간다.



49년생 모질게 하는 거절 원망을 들어보자.61년생 선비의 내공 반짝반짝 빛난다.73년생 깔끔한 기준으로 욕심을 가려내자.85년생 탐욕심은 열정 정수로 매겨진다.97년생 만족은 아니어도 자선을 가져오자.



50년생 사람이 먼저 오는 제인을 들어보자.62년생 뭐라 하는 당부 귀담아 들어보자.74년생 강등이 배가 되는 소식을 들어보자.86년생 씩씩한 대응으로 낙점을 받아내자.98년생 변화하는 과정 각오를 다시 하자.



51년생 식구라는 의미 애뜻함이 더해진다.63년생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오고 간다.75년생 암살 한번 없이 꾸준히 가야 한다.87년생 비어 있던 기쁨 설렘이 채워진다.99년생 특별한 계획에 주인공이 되어보자.



52년생 쉬어가는 여유 계움을 피워보자.64년생 적극적인 지원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자.76년생 주머니 받거나 어깨동무 해보자.88년생 근거 없는 허세 우습게 보여진다.00년생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53년생 잘못된 방식이다. 지적을 들어보자.65년생 대충하는 짐작 낙제점을 받아내자.77년생 애써 긍정으로 기회를 다시 하자.89년생 앞으로 만직진 거침없이 가보자.01년생 승승치미를 모시는 제자가 되어보자.



54년생 보충수입 하는 모범생이 되어보자.66년생 믿고 기다려야 비싼 값을 받아낸다.78년생 말하는 약속보다 실천에 옮겨보자.90년생 흑과 백이 다르다. 선을 그어내자.02년생 눈으로 보여져도 조심을 더해보자.



55년생 주인공인 자리 화려함을 뽐내보자.67년생 이면저면 시도 부진을 탈출하자.79년생 때맞춘 도움에 급한 불을 꺼준다.91년생 잘하고 있 다른 스스로를 격려하자.03년생 달라하는 부탁 얼굴을 두껍게 하자.



56년생 울더리 안으로 행복 꽃을 피워보자.68년생 좋다 하는 가짜 도장이 찍혀진다.80년생 기르자는 수고 무용담이 되어준다.92년생 웃고 떠드는 사이가 눈이 들어온다.04년생 말아져 있던 사이가 리를 중혀보자.



57년생 경손은 하지만 뿌듯함이 넘쳐난다.69년생 제대로 분위기 애정 표현해보자.81년생 어렵고 고된 시절도 되돌아보아야 한다.93년생 술식 한 번성 회초리를 맞아보자.05년생 여전히 힘들어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58년생 관히 하는 간섭 미움으로 찾아온다.70년생 후회는 빠르게 뒤끝 남기지 마라.82년생 함께라서 감사한 만남을 가져보자.94년생 성공과 실패는 주머니 속에 있다.06년생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자.



47년생 원 없이 나누자. 배가 되어 돌아온다.59년생 머리가 기억하는 경험을 깨쳐보자.71년생 생하는 천바람 아별 인사 대신이다.83년생 보고 도둑본 척만청을 피워보자.95년생 마지막 자존심 타협이 있어야 한다.

기고

광양의 발효식품 ‘동치미 마을’로 잇는다

김부각은 바람이 좋은 날 말한다. 햇살이 적당하고, 습기가 많지 않으며, 바람이 미지근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을 때. 발효음식은 그런 자연의 리듬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다. 광양은 그런 리듬을 품고 있는 도시다.

전라남도 광양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제철소나 매화꽃을 먼저 말하지만,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은 ‘시간이 만든 맛’이다. 광양의 발효음식은 단순히 오래된 조리법이 아니라, 기다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다. 김치 한 포기, 장 한 항아리에 담긴 계절과 기억은 도시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광양 옥룡에서 민박을 운영해온 오정숙 씨는 발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그녀는 ‘매화랑매실이랑’이라는 교육장을 운영하며 매실을 활용한 발효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 장아찌, 액기스, 장류 등 종류만 해도 50여 가지에 달한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지역 여성문화센터 출강 등으로 광양의 발효문화를 도시민에게 전하고 있다. 농촌의 계절과 수고를 도시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그런 일상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김부각이 잘 마를 수 있는 날씨와 기온은 물론, 장을 담그며 느낀 변화, 계절마다 재료가 다르게 반응하는 방식, 새로운 발효 음식에 대한 실험까지. 그것은 한 사람의 음식일기이자, 광양이라는 지역의 미각기록이다.

광양의 발효문화는 오정숙 씨와 같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왔다. 조용히 제 몫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광양의 발효문화는 끊기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이제 그 문화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 리지원센터장으로서, 이 사업이 단순한 음식 제조 공간을 넘어선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발효 뒷밭 조성, 김치 담그기 체험, 발효식품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효문화를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발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광양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은 발효의 시간을 거쳐 매실청이 되고, 동치미가 되고, 가정떡이 된다. 동치미 마을은 이러한 발효의 과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양의 발효문화를 도시 밖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것이다.

광양의 발효는 단순히 장독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봄에 담가 여름 내내 숙성시킨 매실청 한 병, 풋풋하게 익은 싱건지(동치미) 한 그릇, 찹쌀과 시간을 빚어 만든 기정떡 한 판. 이 음식들은 냉장고 속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맛을 간직한다.

이제 광양은 발효의 시간을 지역산업과 연결할 계획이다. 발효식품 아카데미와 동치미 마을 조성은 단순히 맛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발효식품 표준화 연구, 글로벌 시장 진출, 할랄 인증, MBN과 홍보 협력 등을 통해 발효문화를 지역산업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광양의 발효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다. 입안에 퍼지는 품미보다 오래 남는 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과 마음이다. 광양의 동치미 한 모금, 김부각 한 장에는 시간과 정성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 맛을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발효는 시간의 기록이자, 사람의 기록이다. 그리고 광양은 그 시간을 지키고,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발효식품을 넘어, 광양의 발효문화와 동치미 마을이 K-푸드로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해인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50 경부고속도로 50주년